

깨어남의 심리학 (1부)

| 프랭클린 메렐-울프 | 진선 '지금여기' 번역위원 옮김 |

보통의 인간이 감각 지각 인지라는 X, Y, Z 삼차원적 의식 활동에 묶여 있다면 사차원적 자유인은 X, Y, Z에 또 다른 자유의 각도인 한 차원을 더 추가한 삶을 살며, 이차원적 평면 인간이 삼차원적 입체 인간을 이해할 수 없듯이, 의식의 삼차원 인간도 사차원적 의식의 인간이 되어보아야만 그를 이해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동시에 그리로 향하는 실마리도 함께 언급하며...(편집자 주).



의식의 바다

의식의 대양이 내 앞에서 다섯 개의 층으로 펼쳐진다. 제일 위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완전히 고요한 바다가 있다. 그 아래에 또 하나의 장대한 바다가 있어 위의 바다 속으로 녹아드는데 크기가 첫 번째 바다보다 크지 않다. 이 바다에는 커다란 파도가 큰 소리를 내며 흐른다. 그 아래에 심연이 있고 이어서 경계로 둘러싸인 세 번째 바다가 있어 점점 팽창한다. 여기서는 사방으로 계속해서 물결이 흐른다. 곳곳에서 하모니를 이루고 뒤섞이고 충돌하며 큰 파동을 일으킨다. 이 따금, 이 바다로부터 거센 소용돌이와 함께 심연을 관통하는 물기둥이 솟아나 위의 바다에 닿는다. 세 번째 바다 아래 크게 동요하는 네 번째 바다가 맞닿아 있다. 물결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방향성을 상실한 채 흐른다. 사망이 혼란스럽다. 가장 밑바닥에는 아무런 의미나 목적 없이 약한 물결이 이는 얇은 바다가 있다.

제일 위에 있는 바다는 절대로 고갈되지 않고 경계가 없는 무한한 의식의 대양이다. 언뜻 보기에 텅 비어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의 토대며 모든 사물의 궁극적 상태인 순수한 신성으로서 자신(SELF)의 충만함이다.

그 아래 층은 우주와 초월적 의식의 단계다. 여기서 유일자는 형제애다. 이처럼 연속성은 계속 진화하며 유지된다. 그 아래 심연이 있는데 건너기 쉽지 않다. 인류는 광기 속에서 심연을 확장시키는데, 사랑에 헌신하는 소수가 벌어지는 틈을 연결하려고 끊임없이 분투한다.

세 번째 바다는 자아, 주체-객체, 최상의 발달 단계의 의식이며, 자아적 인간의 순수한 상위단계다. 이 바다에 사랑과 지성의 상위 단계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주체-객체의 한

계 속에 머물러 있다. 이들이 흔히 말하는 〈선택된 종족(Chosen Race)〉을 형성한다. 그들이 없다면 심연은 사람들 대부분이 건널 수 없게 되며,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모두가 가라앉게 되고 무지의 완만한 바다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모든 인간 가운데 상대적으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세 번째 바다에 계속 머무르며 모든 문명을 직접적으로 유지하고, 바깥쪽 삶의 짐을 진다. 이중에는 가끔 심연을 가로지르는 데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다.

네 번째 바다는 좁게 한정되어 있지만 수많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은 준 지성적이며, 반쯤 교양을 갖춘 대중인데 보잘것없는 지식을 가지고 생각하고, 지식이 많음에도 겸손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단계에서는 감정과 열정이 가득한 무의미한 분쟁이 일어난다. 나라와 계급의 혼란을 일으키는 큰 파도가 일어나는 장소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직 빛과 욕망에 의해 생성되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는 분명히 훈련되어 있지 않고 좋지 못한 방향으로 나가지만 결국 활용되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한다. 이곳에 머무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어리석지만 아직 희망이 많이 남아있다.

다섯째 바다는 바닥이 얇고 폭이 좁은데 수많은 대중으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은 열정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셔버려 취한 자들이며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자신들이 바로 큰 짐인 그런 자들이다. 바닥에 있는 진흙이 마구 흔들려 매우 탁한데, 자기의식(self-consciousness)의 희미한 빛만이 이 바다를 밝히고 있다. 아직 이 바다에는 자기의식이 조금 남아있는데 동물보다 위에 있지만 동물의 의식 속으로 깊이가 가라앉고 있다. 자기의식과 동물의식의 잘못된 결합으로 동물보다 하위에 있는 무엇인가가 만들어진다.

여러 단계를 통과할 때 사람들은 자신이 가라앉고 있는 심연에서

벗어나 위로 솟아오를 만큼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것처럼 느낀다. 시냇물 바닥으로 가라앉는 젖은 나뭇잎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없다. 그리고 아직 완전히 바다에 가라앉지 않은 나뭇잎을 다시 솟아오르게 하는 일은 무척 어렵다. 흠뻑 물에 젖어 몽롱한 트랜스 상태에서부터 의식을 각성시키는 일은 강력한 악의 힘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불꽃이 완전히 꺼지지 않는 한, 아직 많은 사람이 구조될 수 있으며 불길이 다시 살아나는 한, 그런 일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일 낮은 바다에 있는 사람 중에서 세 번째 바다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심연 너머의 영역은 전혀 모른다. 그래서 이 지역의 거주자들은 지도자에 반기를 들며, 무지로 인해 자신들의 희망인 이들을 말살한다. 전혀 의지할 바 없이 홀로 심연 속에 머무르기보다, 절대로 어길 수 없는 법을 사용하는 냉혹하지만 뛰어난 지도자의 노예가 되는 것이 더 낫다. 새가 나비를 잡아먹음으로써 나비를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뛰어난 사람은 열등한 사람을 마음대로 이용하면서 위로 끌어올린다. 진정으로 완전하고 지적인 이기심은 열등한 자들을 착취하지 않지만, 보통의 이기심이 항상 그런 식으로 열등한 자들을 이용하고 있기에, 이기심이 위대한 목적에 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의 기쁨을 나누지 못한다. 뛰어난 자가 열등한 자에게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열등한 자는 어느 정도 우수함으로 끌어올려진다. 이때 작용하는 법칙은 전기장이 주위의 물체에 전기가 통하도록 만드는 물리학 법칙처럼 필연적이다. 정말로 이 세상에서 우수한 계급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성공을 거둔다면 세상은 머지않아 가장 낮은 곳, 다섯 번째 바다에 남아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의미하는 소멸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평등화를

가져오는 사람과 상승하게 만드는 사람 중 과연 누가 정말로 인류의 친구인가?

평등화 과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보여주는 비유 하나가 머리에 떠오른다. 지표층이 모두 동일한 높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마른 땅은 전혀 없이 모든 것을 뒤덮는 대양만 있게 될 것이다. 지구 어느 곳에서도 마른 땅에 사는 생물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원도 없고(모든 대륙은 사실상 고원이다) 산봉우리도 없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명은 삶의 기반인 마른 땅 위에서 발전해왔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한 것처럼 지표가 동일한 높이로 되어 있다면 문명이 발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산봉우리로 상징되는 고양된 의식으로 향해 나아가는 여러 사람의 행렬은 없을 것이다. 상승하는 생명의 사다리가 없다면 물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앞에서 이끌어주는 도움은 어디에서도 올 수 없을 것이다.

초월의식, 그리고 비유적 표현

‘심오함(주객이 없는 고차의식)’의 실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비유적 표현이나 사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직접적 언어 표현으로는 고차의식의 실상을 표현할 수 없다. 그 표현이 실상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실상이 그 표현 속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독자는 이 글에 들어있는 형식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게 아니라 표현을 둘러싼 의식의 매트릭스 속에서 어떤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그 자신에게조차 정말로 표현해낼 수 없는 자기의식 속의 희미한 고양감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감정이 형식적 의미에 더해 ‘플러스 α ’를 구성한다. 형식적 의미는 일종의 초점으로 작용해서 미묘한 ‘플러스 α ’를

끌어당긴다. 더 상위 차원의 영적 발전을 이루기 전까지는 초점을 사용하지 않고 플러스 α 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표현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표현 자체를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결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실질적이고 심오한 의미는 상실된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초월적인 저 세상에 대해 말할 때는 표면적인 말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먼저, <플러스 α >는 ‘없음’ 또는 ‘비어있음’과 거의 구분하기 어렵다. 그것은 마치 방금 내신 숨결과 같으며, 한쪽 끝에서 순간적으로 포착한 희미한 빛이,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바라보려고 하자마자 사라지는 것과 같다. 이 빛에는, 무력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생 동물의 신뢰를 얻으려 할 때, 매우 부드럽게 행동해야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처럼, 절대로 닿을 수 없는 것에 접근하듯이 다가가야 한다.

지극히 정묘한 이런 느낌이 거친 화강암보다 더 뚜렷하고 강하게 현존의 느낌으로 변화되는 시기가 찾아온다. 그것은 직접 관련된 영역만이 아니라 심지어 우주 전체를 용해할 만큼 큰 힘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그 큰 힘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명확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극도로 조심스럽게 흡수되거나 혹은 첫째 단계에서 사라진다. 처음에는 무한 공간에서 팽팽한 밧줄 위를 걷고 있는 것 같으며 균형 잡기가 극도로 어려운 것처럼 느낄 것이다. 그러나 결국 밧줄은, 모든 우주의 최고 지지대이지만 그 자체는 어떤 지지도 필요하지 않은, 그런 전체 공간이 되고 만다. 그럴 경우, 사람은 변형되고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매트릭스가 된다. 더 이상 밧줄 위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지 않으며, 다만 모든 곳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마침내 강자가 되는 것이다.

사차원의 상징

수학에 대한 매우 아름답고 자주 사용되는 비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수학을 사차원에 비유하는 것인데, 주체-객체 의식과 초월적 의식 사이의 상호 연관성은 삼차원과 사차원 공간의 속성을 고려함으로써 상당히 명확해진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상징적 표현이 잘못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잘못 해석될 수 있지만, “차원” 개념을 수와 관련된 속성에서 분리시킴으로써 그런 오해를 피할 수 있다. 수와 관련된 내용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오직 응용 수학에서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서 위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다.

주체-객체 의식은 삼차원 공간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 관계는 주체-객체 의식이 단순히 두 개의 면이 아니라 세 개의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욱 분명해진다.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 이 의식을 주체-객체 의식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 다음 세 가지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자신, 또는 의식의 내용을 자각하는 의식의 주관적 요소
2. 물질 또는 정묘 차원에서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자각의 대상
3. 중간적 위치에 있으며 오직 정신적 존재인 자각 자체

더 나아가, 주체-객체 의식은 세 가지 유형 또는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감각(Sensation): 나는 이 용어를 감각 지각과 직접 연관된 모든 것을 포함하기 위해 사용했다. 따라서 생생하게 느껴지는 감각만이 아니라 “지각(知覺)”과 “지각상(知覺像)” 또는 “생성 이미지” 등도 포함된다. 이 모두는 엄밀한 의미에서 개념 수준 하위에 있는 의식의 양

상이며, 따라서 언어가 가능한 단계보다 선행한다.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의식 양상의 주요 특징은 순수한 수용성과 수동성이다. 의식적 반응이나 사고를 포함하는 의식상태는 모두 감각 이상의 어떤 것을 포함한다.

2. 정동(情動·Affection: 쾌·불쾌의 느낌이 일어나는 것): 심리학과 윤리학에서 부여하는 전체적 의미에 “능동(conation)”이라 부르는 자발적 충동으로 인한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다. 호의적이거나 악의적인 모든 감정과 모든 열정, 그리고 행동하게 만드는 모든 충동을 포함한다. 일반적인 “사랑”의 의미에 한정되지 않으며, 미움, 분노, 욕망, 두려움, 정의감, 아름다움 등을 포함한다. 정동은 도덕감의 본질적 요소로서 종교와 관련해서 매우 큰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나 정동만으로 인간과 동물 모두 공통적으로 의식적 행동과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도덕감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한다. 인식(Recognition, 기억에서 인출해 확인)은 정동에 큰 영향을 주지만 감각에 대한 효과는 미미하다.

3. 인지(Cognition): 의식적 삶 또는 엄밀한 의미의 이해 영역에 대한 것이다. 인지적 의식이 깨어나야 사고와 말하기가 가능하다. 순수하게 수학적 사고에서 다른 두 양상과 가장 많이 떨어져 있으며 모든 철학적, 과학적 사고에서 최상의 방식이 된다. 인간을 우매한 동물로부터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표지다. 정동(情動)과 감각(感覺)은 더욱 넓은 범위로 확장하며 하강하는데, 이에 반해 추상화는 인지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 하나다.

이런 세 양상이 주체-객체 의식의 장(field)을 담당하며 일반적인 인간 자각의 한계를 형성한다. 순수하게 이런 양상 중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인간 의식 상태를 찾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셋 중 하나가 우위를 차지한다. 인지적 의식은 대개 노력해야 얻을 수 있

으며 특히 높은 수준의 사고에 도달하려고 할 때 얻게 된다. 감각과 정동을 고도로 정제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자동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습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신병에서 나타나는 퇴행현상을 보면 제일 먼저 인지능력과 상위 정동이 사라지는 반면 감각능력은 거의 끝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의식이 세 개의 면과 세 개의 양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반대로 동물의 의식은 이차원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차의식이 사차원, 혹은 더 높은 차원과 관계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명확해진다.

보다 일반적인 용법상 “차원”은 “외연”과 “광대함”을 포함하지만 보다 엄격한 순수 수학적 사고에서 이런 개념은 상실된다. 수학에서 “차원”은 “자유의 정도”를 의미하며 그런 의미의 “차원” 개념이 현재 논의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용법이 일반적으로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선에서 점이 모든 가능한 위치를 나타낸다면, 한 개 각도(degree)에 있어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점은 무한한 수의 위치를 점유할 수 있지만 선으로 정해진 영역이나 부분에 제한된다. 다음으로, 한 점이 하나의 평면이나 휘어진 표면에 위치를 점유한다면 이중(two-fold) 각(degree)에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평면 위의 직선 어느 점에서든 그 직선과 직각으로 만나는 또 하나의 선을 그릴 수 있다. 두 번째 선 위에도 무한한 수의 점을 가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첫 번째 선의 모든 가능한 점의 위치에 또 다른 무한한 수의 점이 더해진다. 그러므로 이차원적인 세계는 일차원적인 세계에 비해 무한하게 풍요롭다. 이차원 세계는 두 개 각도의 무한한 위치 가능성을 갖는다. 이런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일

반적인 공간 또는 삼중 자유를 가진 세계를 확보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차원 세계보다 무한하게 큰 가능성 중 하나다. 이런 과정은 무한하게 계속될 수 있으며, 순수 수학에서 가능하므로 단지 사차원만이 아니라 실제로 무한한 수의 차원을 갖게 되는데 논리적으로 정지시키는 점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의 목적은 사중 자유를 갖는 공간인 사차원을 더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의 논의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자유의 각도”로 표현되는 모든 관계는 확장된 공간의 여러 점과 관련이 있겠지만 이런 논리에 확장이 반드시 필요한 개념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와 유사한 관계는 숫자에 측정 관련 의미를 덧붙이지 않고 추상적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확장된 공간이나 확장된 시간 개념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개념을 다루게 된다.

이런 내용이 모든 상징 관계에서 사실인 것처럼, 위의 개념 속에 포함된 형식 관계는 그런 개념을 적절하게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자유의 각도(degree of freedom)”라는 표현과 “무한하게 더 큰 자유(An infinitely greater freedom)”라는 문장으로 무슨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자.

“자유의 각도”는 감각 같은 의식 양상의 모든 가능태를 가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각된 것(percept)과 지각상(recept)을 포함해서 모든 감각 또는 감각의 조합은 의식에 하나의 차원 또는 한 개 각도의 자유를 형성한다. 이런 가공물에 어떠한 제한도 둘 수 없으므로 그들의 전체적 가능성을 하나의 무한성으로 간주한다. 감각은 정동과 함께 이중 무한성을 만들며, 감각, 정동, 인지는 삼중 무한성을 만든다.

“무한하게 더 큰 자유”는 상위 차원에서 구상된 내용을 하위 차원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차원

에서 보다 넓은 다음 차원으로 한 걸음씩 옮기는 것은 무한하게 더 큰 세계로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의미의 초월과 관련이 있다.

한편, 상위 각도의 자유를 가진 세계에서 그보다 낮은 세계로, 또 역으로 상호 표상하는 것이 가능하며, 수학에서 “투사(projection)”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하다. 교량, 건물 같은 삼차원 형태를 이차원 평면에 투사할 수 있으며 도면 위에 삼차원 형태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공학자는 도면을 보고 교량이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심지어 도면을 그리기 전에 그런 모든 대상의 형태를 머리 속에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교량을 계획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직접 교량을 건설해야 해결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를테면 자동차는 실제로 건설된 교량은 건널 수 있지만 이차원적 도안은 건널 수 없다. 이 말은 이차원적 표상이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도 그 한계 안에 절대로 포함시킬 수 없는 무엇인가가 삼차원적 실재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상징을 적용시킬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사차원은 고차의식(Higher Consciousness)을 표상하는데, 고차의식은 우주의식(Cosmic Consciousness), 전문성(Specialism), 그리스도의식(Christ Consciousness), 초월의식(Transcendental Consciousness), 니르바나(Nirvana)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차원을 “심오함”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제 심오함은 깨어남(Awakening)에 의해 사차원을 향해 실현된다. 이 심오함은 다시 감각-정동-인지로 구성된 삼차원으로 하강해서 “투사”되지만 이때 투사된 심오함은 교량의 도면이 교량 자체가 아닌 것처럼 더 이상 심오함이 아니다. 공학자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교량을 건설하기 위한 도면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심오함의 의식(Consciousness

of Profundity)의 발현을 통해서, 고차의식의 내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차원으로부터 가져온 투사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잠재해 있는 심오함의 의식까지도 삶에 섞일 수 있다.


모든 고차의식은 수많은 차원, 어쩌면 무한대의 차원을 포함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의 다음 단계는 사차원으로 충분히 표상할 수 있다.

이때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점은, 낮은 차원에서 상위 차원으로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하위 차원의 모든 가능성을 완벽하게 소진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은 감각과 정동 차원 모두 다른 어떤 동물보다 열려있는데, 많은 부분 이성에 의한 인지적 능력 덕분이다. 그러므로 감각적 예술은 감각적 능력에 더하여 상당한 정동과 인지 발달을 요한다. 실제로 위대한 예술은 특별한 정동 발달을 필요로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격, 사랑 본능, 인간의 도덕적 측면이 고도로 발달하려면 인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 개인이 이 세 차원 중 하나에서 최고로 발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해도 실제로 인간을 동물과 구분하는 것은 인지 능력, 즉 이성적 사고와 언어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인지 능력이다. 인간은 정동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물과 다르지 않은데, 동물도 인간처럼 실제로 사랑, 충성심, 열정, 분노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지를 동반함으로써 인간은 정동의 여러 가능성을 다른 어떤 동물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시켰다. 실제로 순수 인지 차원에서 고도의 우수함을 보이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다수는 정동이나 감각 차원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 중요한 점은 인간을 동물과 구분하는 작은 깨어남과 신인(神人·God-Man)을 평범한 사람과 구분하는 큰 깨어남이 전적으로 새로운 능력의 각성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능력의 발달 정도는

상위 차원의 발전과 관련이 있지만, 동물, 인간, 신인(神人)을 구분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새로운 의식 차원으로 깨어남이다.

인지 능력의 발달로 인해 감정과 정동의 발달이 크게 증진된 것과 마찬가지로, 고차의식으로 깨어남은 이미 부분적으로 펼쳐진 하위 차원의 능력을 크게 증가시킨다. 그 결과, 최상의 종교, 도덕, 예술, 철학, 과학 분야 대부분이 아주 조금이지만 상위 차원으로 깨어난 사람의 손과 입을 통해 이루어진다. 핵심 파워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삼차원의 의식 속에 제한되어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그런 발전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실제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보이는 표식 중 두 가지는 지적 기능과 정동 차원에 관련된 것인데 혁명에 가까울 정도로 큰 증가를 보인다. 동물은, 인간이 포식자 동물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살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인간이 자신을 능가한다는 것을 잘 인지할 수 있지만, 인간에게 그런 특정 능력을 부여하는 열쇠가 무엇인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주객 의식을 가진 인간이, 보다 상위 차원의 신-의식을 가진 인간(God-Conscious Man)의 뛰어난 우수함을 잘 인식할 수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신적 의식을 가진 인간의 능력의 비밀을 푸는 열쇠는 전혀 알지 못한다. 누차 말한 것처럼 인간은 이런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 깨어나야 하며, 그런 깨어남이 무엇인지 규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 능력은 정의를 내림으로써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이번 논의에서 “차원” 개념이 순수 수학적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자유의 각도”라고 생각되는 차원은 “다차원” 개념을 포함하지만 반드시 측정이나 계량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엄밀하게 생각해보면, 측정은 외연 개념이 사용되

는 응용 수학에만 적용되는데, 외연은 물리적 질료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처음 세 개의 차원은 네 번째 차원과 마찬가지로 논리적으로 측정 또는 외연 개념을 끌어들이지 않는다. 다차원성은 순수하게 질적인 해석에 불과하며 따라서 외연을 가진 사차원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다차원 개념은 본질적인 것이며 가장 중요하다. 이 개념이 없다면 어떤 차원, 어떤 의미에서도 발전이나 차별화를 기대할 수 없다. 사실상, 넓은 의미에서 모든 공간은 단지 환상일 뿐이며, 현실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여러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는 순수 수학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진실로, 독자가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외연 개념의 힘을 깨뜨릴 수 있다면, 깨어남을 준비하는 먼 길을 떠나게 될 것이다.(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Franklin Merrell Wolff's Experience and Philosophy'에서 발췌했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프랭클린 메렐 울프(Franklin Merrell Wolff's) (1887-1985) | 미국 신비주의 철학자. 스탠포드와 하버드에서 철학과 수학을 공부한 뒤 인간 의식의 경계를 초월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여러 신비주의적 가르침을 접한 후 즈나나 요가(jnana yoga)의 길을 걸었고, 힌두교 철학에서 아드바이타 베단타(Advaita Vedanta) 학파의 창시자인 산카라(Shankara)의 글을 탐구했다. 1936년 경험한 영적 해방과 깨달음은 울프의 초월 철학의 기초가 되었다.

저서로는 〈Pathways Through to Space〉, 〈The Philosophy of Consciousness without an Object〉(이 두 권은 합쳐져서 후에 〈Franklin Merrell Wolff's Experience and Philosophy〉로 재발행되었다), 〈Transformations in Consciousness: The Metaphysics and Epistemology〉이 있다.

역자 | 진선 | 지금여기 번역위원